

2022.10월 태국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

- ◇ '22.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entiment Index)는 전월(49.6) 대비 1.8p 감소한 47.8로 기업 심리가 악화
- ◇ 3개월 후 전망 BSI는 전월(53.8) 대비 1.9p 하락한 51.9을 기록하며 향후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감소

□ (총괄) '22.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(49.6) 대비 1.8p 감소한 47.8를 기록하며 비용상승 우려 증가, 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 심리가 악화

* 기업경기실사지수(BSI, 전월비) : 50이하(심리 악화), 50이상(심리 개선), 50(심리 안정)

○ 제조업 심리는 상당폭 하락*하고, 비제조업 분야는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치 50 부근에서 안정화(제조업 48.1→44.8, 비제조업 51.3→51.9)

* 제조업 분야 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

- 특히, 비용 부담(27.4→24.5) 우려가 증가하고 전체 주문량 지표는 9개월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 50선을 하회

○ 3개월 후 전망BSI는 비용 관련 지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월 53.8 대비 하락한 51.9이며, 이 중 제조업 지수는 다시 기준치 50선을 하회

- 제조업 중 자동차, 철강 분야는 현재 지수보다 더 낮아 향후 실적 악화가 우려되며, 비제조업 분야는 관광 확대 등에 힘입어 50선을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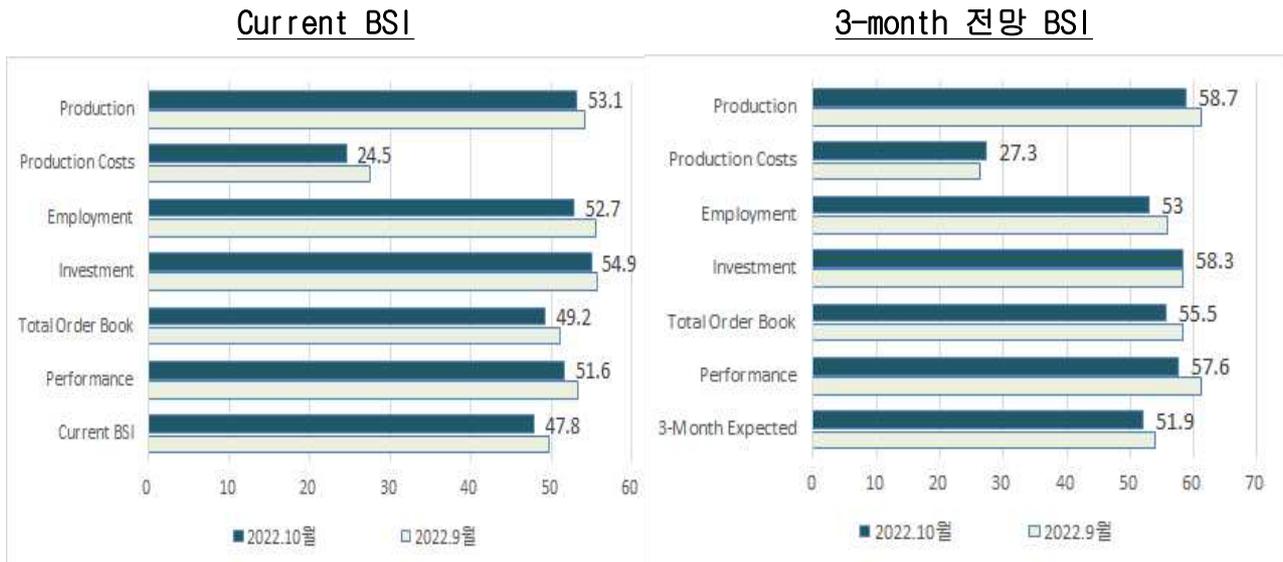
Current BSI 및 3-month 전망 BSI 추이



* 출처: 태국 중앙은행, BSI 기준값 = 50

□ (구성요소별) 현재 업황 BSI는 생산, 비용, 고용, 투자 주문, 실적 등 모든 영역에서 전월 대비 기업 심리가 악화

○ 3개월 전망 BSI는 비용 항목의 소폭 개선 외에 투자는 유지, 생산, 고용, 주문, 실적 4개 항목은 전월 대비 악화



* 출처: 태국 중앙은행, BSI 기준값 = 50

□ (평가 및 전망) 현재 업황 BSI는 9월(49.6) 대비 1.8p 감소한 47.8로 전월 대비 악화, 3개월 후 기업경기도 9월(53.8)과 대비 1.9p 줄어든 51.9를 기록

○ 정책금리 인상, 환율 상승, 인플레이 지속 등에 따른 주문량 감소 및 비용 증가 우려는 기업이 직면하는 유동성 상황 악화*를 야기

* 3개월 후 기업 유동성 지수가 다시 기준치 50을 하회

○ 3개월 후 기업경기는 관광 등 비제조업 분야는 개선될 전망이나 제조업 분야는 수요 감소 및 실적 저하 우려 등으로 기준치 50선을 하회

- 향후 12개월 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4.7%에서 4.6%로 소폭 하락

○ 향후 체감경기는 글로벌 고금리·강달러의 영향, APEC(11.18~19), 관광 하이시즌(10월말~다음해3월) 등에 따른 소비 확대 여력 등에 주목 필요

※ 미국 기준금리 추이(%) (20.3) 0.25 (22.3) 0.5 (22.5) 1.0 (22.6) 1.75 (22.7) 2.5 (22.9) 3.25 (22.11) 4.0

태국 기준금리 추이(%) ('20.5월~'22.8.9) 0.5%, ('22.8.10) 0.75% ('22.9.28) 1.0%

* 태국 관광청은 22.1.1~10.26까지 외국인 관광객 735만명 방문, 연말까지 1천만명 전망

- 중앙은행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에도 태국의 성장률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

* 태국의 GDP 성장률 전망(중앙은행, BOT) : '22년 3.3%, '23년 3.8%